



보도시점 2024. 4. 26.(금) 배포 2024. 4. 26.(금)

이기철 재외동포청장, 재외공관장들에 재외동포정책 소개하고 협력 당부

- 청 출범 후 재외공관장 회의서 첫 오찬 간담회 마련...재외동포 지원방안 논의
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024년 재외공관장 회의 일정의 하나로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사·총영사·분관장 등 총 180여 명의 공관장에게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하고, 협력을 당부했다.
- 이 청장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의 배경과 의의, 달라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목표,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재외공관장에게 영사민원실 개선, 동포단체 지원금 관리강화, 우리정부 및 동포청 정책홍보, 재외동포사회 민생현장 중심의 활동강화 등에 있어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 -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의 핵심사업인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교육과 이를 해외 교과서에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“이는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거주국 내 한인들의 지위향상이라는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인 만큼 각 공관장들이 관심을 보여달라”고 부탁했다.
-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오찬 간담회는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상생발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있어 공관장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.
 - 간담회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“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달라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”고 입을 모았으며,
 - 전세계 한인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관 표준안 보급, 한국어

교사가 부족한 비영어권 지역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사 파견, 입양인 보듬기 강화, 재외공관 무인 민원증명서 발급기 보급, 한글학교 교육 기자재·교재 배포 시스템 구축, 한글학교 교사 경력인정 등을 건의했다.

끝

담당 부서	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장	김동곤	032-585-3128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욱	032-585-3131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